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 인식과 행동 및 지출비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air Care Attitudes, Practices and Spend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초빙외래교수 박진영*

Dept. of Human Ecology, Kyung Sung Univ.

Lecturer : Park, Jin-Y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hair care as well as their hair care practices and spending. The analytical tools include the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hair care was 18.5(out of a possible 30).
- (2)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students' attitudes toward hair care were gender, school year and monthly spending money.
- (3) Hair care practices differed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attitudes toward hair care.
- (4)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hair care was 31,769 won. The variable that most influenced monthly hair care expenditures was gender.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the variable with the largest effect on hair care attitudes, practices and spending was gender.

▲주요어(Key Words)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attitudes toward hair care), 헤어관리행동(hair care practices)

I. 서론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하는 욕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가지고 있는 욕구이며, 이러한 욕구가 여러 가지 외모를 위한 관리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외모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해 내는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보다 매력적이며 좋은 이

미지로 돋보이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제일기획(2004)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66.7%, 여성의 57.3%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였으며, 응답남성의 69.3%가 '남자도 필요하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응답남성의 42.7%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외모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임을 나타낸다. 외모에 대한 남성의 관심영역은 패션과 함께 여성의 전유물이던 메이크업, 피부관리,

* 주 저 자 : 박진영 (E-mail : pjy21kr@hanmail.net)

헤어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74%의 남성이 성형수술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헤럴드경제, 2004)가 있을 정도로 성형수술에도 긍정적이며, 최근에는 건강과 신체이미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녀노소 전 연령층의 몸매, 체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체형관리, 근육만드는 법에서 식이요법에 이르기 까지 신체이미지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는 화장품, 성형수술 등 전 세계 뷰티관련 산업의 시장규모가 총 240억 달러(한화 28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기준 성형, 다이어트와 몸매관리 등 전체 미용시장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업체 관계자들은 전망하였다. 건강한 아름다움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자기관리는 자기만족감을 높이고, 삶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될 것이지만, 무분별한 성형수술이나 건강에 해가 되는 다이어트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모관련시장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성장추세에 있고, 따라서 외모관련 연구도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외모관련연구에서는 여대생 또는 남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관리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거나, 외모관리행동을 패션, 피부관리,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체형관리 등 개별 외모관리행동으로 나누는 외모관리행동의 유형화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 중에서도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여대생뿐 만 아니라 남자대학생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헤어관리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미적탐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원시시대부터 모발을 가다듬는 것은 신체보호의 기능이외에 주술적이며, 심미적인 기능을 지닌 인간의 종합적 표현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모발을 가꾼 모양만 보아도 그 사람의 지위, 계급, 신분, 혼인의 유무 등을 알 수 있었으므로 헤어스타일은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는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곽형심, 1997). 최근에 와서 헤어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어스타일이 사회생활에서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자신감과 외모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이명희, 2000) 웰빙 열풍으로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스컴의 발달로 패션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헤어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헤어관리에 대한 연구는 의식조사나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며,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의 유형화연구가 있을 뿐 헤어관리행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성(여대생 또는 남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를 좀 더 보완하고자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고자 하며, 배경변인별 헤어관리행동의 차이 및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남녀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헤어관리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와 외모지상주의의 개념

외모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으로 정의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외모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으로 사회 규범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형성되어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보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인자, 1990, 102). 이러한 외모에 대한 정의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외형적 형상을 말하며 패션, 얼굴, 피부·화장, 체형, 헤어스타일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전체적인 외형적 모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형적 모습을 통해 직업, 지위, 호감도, 이미지, 느낌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말투나 행동, 성격, 감정 등 내면적인 요인도 외모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모란 “외형적 형상과 내면적인 요인이 결합된 전반적인 모습(신효정, 2002)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지각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날씬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자하는 사회적 이상은 외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이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외모지상주의의 어원은 외모의 의미인 'Look'과 주의·학설을 의미하는 'Ism'이 결합된 용어로서 'Lookism'이라하며, 외모지상주의 또는 외모차별주의로 번역되고 있다. Lookism이라는 용어를 처음사용한 사람은 William Safire인데, 2000년 8월 뉴욕타임지의 칼럼 on language에서 인종·성별·종교·이념 등에 이어 불평등을 만들어낸 원인의 하나로 외모를 지목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인상의 좋고 나쁜 수준을 넘어서 취업이나 결혼 등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모지상주의는 과거부터 존재해 왔으나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2.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이해

외모관리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정제성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악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Goffman, 1961).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이 타고난 외모는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기인하며,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지는 이런 여러 가지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 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의복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 된다(Kaiser, 1990). 즉 여성에게 있어 외모가꾸기에 대한 개인의 의지는 의복이나 헤어스타일, 화장품 등에 대한 관심 및 구입의 증가는 물론이고,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성형수술 등 좀 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나타내는 동기가 될 수 있다(김은주, 2001). 한편 신체이미지는 고정되어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매력적인 광고모델들이 신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신체를 꾸며주는 의복이나 보석, 화장, 향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변화행동을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려한다(Cash, 1990). Lennon과 Rudd(1994)는 사회비교이론을 토대로 신체미학모델을 발전시켰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어떤 문화 내에서 이상적인 외모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를 창조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적기준으로 내면화되며, 이상적 기준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이 동기화되어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Rudd와 Lennon(2000)은 미국여대생 95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현대서구사회의 이상적 미의 기준은 날씬함, 매력, 체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공통된 테마는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하였다. 즉 신체는 단련될 수 있으며, 개인의 통제 하에 있다는 선제된 감정을 나타내는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이 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모관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화두이며,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유형도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면서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되어 다양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모관리행동에는 헤어관리, 피부관리, 미용성형관리, 패션관리(의복 및 소품 착용), 몸매관리(다이어트), 화장, 네일·페티규어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행동들은 여성들이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외모지상주의가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모가 남성들의 사회적 능력

을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남성들도 다양한 유형의 외모관리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3. 헤어관리행동에 대한 이해 및 선행연구고찰

헤어스타일(hair style)은 '머리형이나, 머리형태, 머리풍'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헤어두(hair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로는 쿠아튀르(coiffure)라고 한다. 헤어스타일은 시대·민족·개인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모두 의복과 관련되어 발전하고 어느 시대에는 의복을 능가하여 패션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으며, 계급차나 성별을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이다(패션전문자료조사사전편찬위원회, 1997). 또한 헤어스타일은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헤어관리에서는 염색, 펌, 드라이, 코팅, 영양, 두피 또는 모발 마사지 등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 현대인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미적인 측면보다는 모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모발 특성에 따라 이에 맞는 관리가 요구되어지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타일의 기본 소재가 되는 모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리라, 2003).

머리염색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는 경우가 55.4%로 가장 많았고, 부분염색이 22.3%, 염색을 하지 않는 경우도 17.6%를 차지하였다(김선희, 2003).

두피 및 모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남자 대학생의 경우, 모발이 자연색이 아니거나 펌을 많이 하는 경우, 헤어스타일이 이미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두피관리행위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2001).

박수진(2006)은 3가지의 연구방법(기사의 내용분석, 설문지법, Q방법)을 통해 실제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 유형을 밝히고(패션, 신체이미지추구형, 패션, 헤어추구형, 피부관심형, 패션추구형, 개성추구형), 연령 및 직업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 경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24세인 남성들의 경우에 주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연구(박수진·박길순, 2008)에서는 자신의 외모연출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의복요인이 31.2%, 헤어스타일이 29.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타인이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데 가장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요인은 의복요인이 33.2%, 헤어스타일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모연출 시 타인의 평가에 가장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윤소영(2007)은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 헤어스타일, 피부관리, 화장, 성형에 관한 전반적인

외모관리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대생들의 외모관리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46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외모관리가 3.75, 피부관리 3.59, 헤어관리 3.41, 미용성형 3.33, 화장 3.31점으로 나타나 외모관리와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외모관리행동유형은 피부관리(60.0%)가 가장 선호되었다. 헤어숍방문기간은 2달에 1번(2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적 특성(학년, 전공계열, 월평균용돈, 피부타입)에 따라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대체로 남사대학생보다는 여자대학생의 평균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김영란, 2008),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년, 전공계열, 피부상태, 건강상태, 형제서열)에 따라 외모관리행동과 지출비용이 다르게 나타났다(김영숙·박진영,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여대생 또는 남사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관리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거나,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 중에서도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여대생 뿐만 아니라 남사대학생도 높은 관

심을 나타내는 헤어관리행동을 중심으로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과 배경변인별 헤어관리행동의 차이 및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헤어관리 인식에 따라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은 얼마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자료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은 윤소영(2007), 박수진(2006), 이미희(2001), 김은주(2001)의 설문지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1부는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문항을, 2부는 전반적인 헤어관리행동 문항을, 3부는 헤어관리비용 문항을, 4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및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 구 성 | 문 항 | 내 용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6 | 모발, 모발제품 및 화장품,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좋은 머릿결을 위해 두피와 모발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정도 |
| 헤어관리행동 | 6 | 헤어숍방문횟수, 헤어스타일 연출시 추구하는 이미지, 헤어스타일 연출시 고려하는 점, 두피관리경험 여부, 모발제품구입 장소, 이용하는 미용실 점포유형 |
| 헤어관리비용 | 5 | 헤어관리를 위해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 |
| 인구통계학적 특성 | 5 | 성별, 학년, 전공계열, 월평균용돈, 월평균가구소득 |

<표 2>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의 문항구성과 내용

| 구 성 | 문 항 | 내 용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6 | 나의 모발상태(머리색, 머릿결)에 대해 관심이 많다. 새로운 모발제품이나 모발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헤어스타일이 사람의 인상·스타일을 결정짓는데 중요하다.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을 따르는 편이다.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두피·모발관리를 받고 싶다. |

<표 3>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 검증결과

| 구분 | 문항수 | Cronbach's α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6 | .7116 |

(1)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헤어관리의 필수요소인 모발, 모발제품 및 화장품,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및 좋은 머릿결을 위해 두피와 모발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심과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두피·모발관리의 희망정도가 높을수록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의 문항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6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2) 헤어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에는 염색, 퍼머, 드라이, 코팅, 영양, 두피 또는 모발 마사지 등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으며, 두피나 모발의 상태를 개선하여 인상·스타일을 향상시키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헤어관리행동 문항은 6문항으로, 첫 번째 문항은 헤어숍방문횟수(한 달 1회, 2~3달 1회, 3~4달 이상 1회), 두 번째 문항은 추구하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세련되고 지적인, 소년·소녀다운 귀여운, 매력적이고 섹시한, 우아하고 단아한, 자연적이고 청순한, 개성적인 터프한), 세 번째 문항은 헤어스타일 연출시 고려하는 점(얼굴형에 맞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스타일로, 유행이나 기분에 따라, 좋아하는 스타일로) 네 번째 문항은 두피관리경험여부(있다, 없다), 다섯 번째 문항은 모발제품구입 장소(미용실, 대형매장/마트, 화장품전문점, 백화점, 기타), 여섯 번째 문항은 이용하는 미용실 점포유형(프랜차이즈, 시내중심가, 학교앞/집근처, 정해져 있지 않음)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 본 연구에서는 커트, 퍼머, 염색, 모발제품구입(샴푸, 린스, 젤, 왁스 등), 기타의 5가지 부분에 지출한 월평균총액을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았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4년제 남녀 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였으며, 총5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57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내용이 부실한 36부를 제외한 521부만을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SPSS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통계분석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평균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헤어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식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고, 헤어관리행동을 위한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2. 헤어관리 인식, 행동 및 지출비용의 분석

1) 헤어관리 인식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30점 만점에 평균 18.5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외모관리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5점 만점에 3.46점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윤소영(2007)의 연구결과와, 그리고 20~30대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외모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 우지영(200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성별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월평균용돈에 따라서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남자대학생보다 평균점이 1.8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대학생의 인식도가 남자대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헤어관리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헤어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서 헤어관리의 인식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헤어관리에 대한 관심이 즉시 지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식이 높게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성 별 | 남자 | 244 | 46.9 |
| | 여자 | 276 | 53.1 |
| 학 년 | 1학년 | 127 | 24.5 |
| | 2학년 | 179 | 34.6 |
| | 3학년 | 156 | 30.1 |
| | 4학년 | 56 | 10.8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183 | 35.5 |
| | 자연·과학계열 | 277 | 53.8 |
| | 예·체능계열 | 55 | 10.7 |
| 월평균용돈 | 0~29만원 | 148 | 29.1 |
| | 30~50만원 | 302 | 59.3 |
| | 51만원 이상 | 59 | 11.6 |
| 월평균가구소득 | 400만원 미만 | 326 | 66.9 |
| | 400만원 이상 | 161 | 33.1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15이하 | 108 | 20.8 |
| | 16~18점 | 149 | 28.7 |
| | 19~21점 | 163 | 31.3 |
| | 22점 이상 | 100 | 19.2 |
| 계 | | 521 | 100 |

* 결측값에 의하여 빈도와 백분율에 차이가 있음.

<표 5> 헤어관리 인식의 차이

| 구분1 | N | Mean | SD | t(F) | |
|---------|---------|--------|--------|-------|-----------|
| 성별 | 남 | 244 | 17.504 | 3.876 | -5.696*** |
| | 여 | 276 | 19.362 | 3.561 | |
| 학년 | 1학년 | 127 | 17.937 | 3.940 | 2.665* |
| | 2학년 | 179 | 18.279 | 3.798 | |
| | 3학년 | 156 | 18.891 | 3.515 | |
| | 4학년 | 56 | 19.375 | 4.262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183 | 18.312 | 4.105 | 1.403 |
| | 자연·과학계열 | 277 | 18.693 | 3.611 | |
| | 예·체능계열 | 55 | 17.836 | 3.645 | |
| 월평균용돈 | 0~29만원 | 148 | 18.128 | 3.449 | 3.267* |
| | 30~50만원 | 302 | 18.520 | 3.667 | |
| | 51만원 이상 | 59 | 19.610 | 4.889 | |
| 월평균가구소득 | 400만원미만 | 326 | 18.371 | 3.844 | -1.595 |
| | 400만원이상 | 161 | 18.963 | 3.860 | |
| 계 | 520 | 18.490 | 3.823 | | |

* $p < .05$, *** $p < .001$ 결측값에 의하여 빈도에 차이가 있음.

나타난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외모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윤소영(200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헤어관리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영란(2008)의 연구에서는 예체능계열의 외모관리 인식 태도가 3.33점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2) 헤어관리 행동분석

(1) 헤어숍방문횟수 차이

헤어숍 방문 횟수는 '2~3달 1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6.3%), 성별, 월평균용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은 '1달 1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55.3%), 여자 대학생은 '3~4달 1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49.3%).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의 길이를 짧게 유지

<표 6> 헤어숄 방문횟수에 대한 X² 검증 결과

| 빈도(행백분율) | | 1달 1회 | 2~3달 1회 | 3~4달 이상 1회 | 계(전체백분율) | X ² (df) |
|-------------|----------|-----------|-----------|------------|------------|---------------------|
| 성 별 | 남 | 135(55.3) | 87(35.7) | 22(9.0) | 244(46.9) | 136.378(2) *** |
| | 여 | 38(13.8) | 102(37.0) | 136(49.3) | 276(53.1) | |
| 학 년 | 1학년 | 41(32.3) | 52(40.9) | 34(26.8) | 127(24.5) | 10.545(6) |
| | 2학년 | 60(33.5) | 63(35.2) | 56(31.3) | 179(34.6) | |
| | 3학년 | 45(28.8) | 54(34.6) | 57(36.5) | 156(30.1) | |
| | 4학년 | 27(48.2) | 18(32.1) | 11(19.6) | 56(10.8)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59(32.2) | 62(33.9) | 62(33.9) | 183(35.5) | 3.927(4) |
| | 자연·과학계열 | 91(32.9) | 102(36.8) | 84(30.3) | 277(53.8) | |
| | 예·체능 계열 | 21(38.2) | 23(41.8) | 11(20.0) | 55(10.7) | |
| 월평균 용돈 | 0~29만원 | 26(17.6) | 57(38.5) | 65(43.9) | 148(29.1) | 36.743(4) *** |
| | 30~50만원 | 112(37.1) | 107(35.4) | 83(27.5) | 302(59.3) | |
| | 51만원 이상 | 32(54.2) | 20(33.9) | 7(11.9) | 59(11.6) | |
| 월평균 가구소득 | 400만원 미만 | 101(31.0) | 117(35.9) | 108(33.1) | 326(66.9) | 5.205(2) |
| | 400만원 이상 | 62(38.5) | 61(37.9) | 38(23.6) | 161(33.1)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15점 이하 | 35(32.4) | 37(34.3) | 36(33.3) | 108(20.8) | 1.640(6) |
| | 16~18점 | 49(32.9) | 55(36.9) | 45(30.2) | 149(28.7) | |
| | 19~21점 | 55(33.7) | 57(35.0) | 51(31.3) | 163(31.3) | |
| | 22점 이상 | 34(34.0) | 40(40.0) | 26(26.0) | 100(19.2) | |
| 계(전체백분율) | | 173(33.2) | 189(36.3) | 159(30.5) | 521(100.0) | |

***p<.001

<표 7> 추구하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X² 검증 결과

| 빈도(행백분율) | | 세련되고 지적인 | 소년·소녀다운 귀여운 | 매력적이고 섹시한 | 우아하고 단아한 | 자연적이고 청순한 | 개성적인 터프한 | 계(전체백분율) | X ² (df) |
|-------------|---------|-----------|-------------|-----------|----------|-----------|----------|------------|---------------------|
| 성 별 | 남 | 72(29.6) | 26(10.7) | 11(4.5) | 13(5.3) | 87(35.8) | 34(14.0) | 243(47.1) | 44.700(5) *** |
| | 여 | 49(17.9) | 40(14.7) | 33(12.1) | 17(6.2) | 128(46.9) | 6(2.2) | 273(52.9) | |
| 학 년 | 1학년 | 32(25.4) | 15(22.7) | 12(9.5) | 6(4.8) | 55(43.7) | 6(4.8) | 126(24.5) | 14.147(15) |
| | 2학년 | 38(21.3) | 31(17.4) | 15(8.4) | 8(4.5) | 74(41.6) | 12(6.7) | 178(34.6) | |
| | 3학년 | 35(22.6) | 14(9.0) | 12(7.7) | 13(8.4) | 67(43.2) | 14(9.0) | 155(30.2) | |
| | 4학년 | 16(29.1) | 6(10.9) | 5(9.1) | 3(5.5) | 18(32.7) | 7(12.7) | 55(10.7)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50(27.3) | 30(16.4) | 13(7.1) | 15(8.2) | 64(35.0) | 11(6.0) | 183(35.8) | 16.820(10) |
| | 자연·과학계열 | 59(21.6) | 29(10.6) | 24(8.8) | 15(5.5) | 124(45.4) | 22(8.1) | 273(53.4) | |
| | 예·체능 계열 | 10(18.2) | 6(10.9) | 6(10.9) | 0(0.0) | 26(47.3) | 7(12.7) | 55(10.8) | |
| 월평균 용돈 | 0~29만원 | 30(20.3) | 22(14.9) | 9(6.1) | 7(4.7) | 75(50.7) | 5(3.4) | 148(29.2) | 18.992(10) * |
| | 30~50만원 | 71(23.7) | 37(12.4) | 28(9.4) | 19(6.4) | 118(39.5) | 26(8.7) | 299(59.1) | |
| | 51만원 이상 | 18(30.5) | 5(8.5) | 6(10.2) | 4(6.8) | 17(28.8) | 9(15.3) | 59(11.7) | |
| 월평균 가구소득 | 400만원미만 | 75(23.1) | 47(14.5) | 24(7.4) | 17(5.2) | 143(44.1) | 18(5.6) | 324(67.1) | 16.175(5) ** |
| | 400만원이상 | 43(27.0) | 14(8.2) | 19(11.9) | 10(6.3) | 54(34.0) | 20(12.6) | 159(32.9)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15점 이하 | 20(18.7) | 21(19.6) | 3(2.8) | 5(4.7) | 51(47.7) | 7(6.5) | 107(20.7) | 32.172(15) ** |
| | 16~18점 | 37(25.0) | 15(10.1) | 10(6.8) | 6(4.1) | 63(42.6) | 17(11.5) | 148(28.7) | |
| | 19~21점 | 34(21.0) | 14(8.6) | 20(12.3) | 11(6.8) | 74(45.7) | 9(5.6) | 162(31.4) | |
| | 22점 이상 | 30(30.3) | 16(16.2) | 11(11.1) | 8(8.1) | 27(27.3) | 7(7.1) | 99(19.2) | |
| 계(전체백분율) | | 121(23.4) | 67(13.0) | 44(8.5) | 30(5.8) | 215(41.6) | 40(7.7) | 517(100.0) | |

*p<.05, **p<.01, ***p<.001

하는 경우가 여자대학생의 경우보다 많아서일 것이다.

(2) 헤어스타일 연출시 추구하는 이미지

헤어스타일 연출시 추구하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개성적인 터프한 이미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1.6%), 성별, 월

평균용돈, 월평균가구소득,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의 경우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29.6%)와 개성적이고 터프한 이미지(14.0%)만 전체평균(각 23.4%, 7.7%)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고, 나머지

<표 8> 헤어스타일 연출 시 고려하는 점에 대한 X^2 검증 결과

| 빈도(행백분율) | | 얼굴형에 맞게 |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스타일로 | 유행·기분에 따라 | 좋아하는 스타일로 | 계(전체백분율) | X^2 (df) |
|-------------|---------|----------|------------------|-----------|-----------|------------|------------|
| 성 별 | 남 | 19(8.3) | 159(69.4) | 21(9.2) | 30(13.1) | 229(45.9) | 1.814(3) |
| | 여 | 18(6.7) | 183(67.8) | 23(8.5) | 46(17.0) | 270(54.1) | |
| 학 년 | 1학년 | 7(5.6) | 88(71.0) | 9(7.3) | 20(16.1) | 124(24.9) | 5.162(9) |
| | 2학년 | 12(7.1) | 114(67.1) | 16(9.4) | 28(16.5) | 170(34.1) | |
| | 3학년 | 13(8.7) | 106(71.1) | 13(8.7) | 17(11.4) | 149(29.9) | |
| | 4학년 | 5(9.1) | 33(60.0) | 6(10.9) | 11(20.0) | 55(11.0)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14(7.9) | 124(70.1) | 14(7.9) | 25(14.1) | 177(35.8) | 5.478(6) |
| | 자연·과학계열 | 17(6.5) | 183(69.6) | 26(9.9) | 37(14.1) | 263(53.2) | |
| | 예·체능 계열 | 5(9.3) | 33(61.1) | 3(5.6) | 13(24.1) | 54(10.9) | |
| 월평균 용돈 | 0~29만원 | 14(10.0) | 97(69.3) | 10(7.1) | 19(13.6) | 140(28.6) | 4.248(6) |
| | 30~50만원 | 17(5.8) | 201(68.6) | 29(9.9) | 46(15.7) | 293(59.9) | |
| | 51만원 이상 | 4(7.1) | 36(64.3) | 5(8.9) | 11(19.6) | 56(11.5) | |
| 월평균 가구소득 | 400만원미만 | 19(6.1) | 217(69.6) | 25(8.0) | 51(16.3) | 312(66.7) | 3.837(3) |
| | 400만원이상 | 14(9.0) | 101(64.7) | 19(12.2) | 22(14.1) | 156(33.3)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15점 이하 | 6(6.2) | 67(69.1) | 9(9.3) | 15(15.5) | 97(19.4) | 10.216(9) |
| | 16~18점 | 6(4.2) | 104(73.2) | 13(9.2) | 19(13.4) | 142(28.5) | |
| | 19~21점 | 19(11.8) | 108(67.1) | 11(6.8) | 23(14.3) | 161(32.3) | |
| | 22점 이상 | 6(6.1) | 63(63.6) | 11(11.1) | 19(19.2) | 99(19.8) | |
| 계(전체백분율) | | 37(7.4) | 342(68.4) | 44(8.8) | 77(15.4) | 500(100.0) | |

<표 9> 두피관리 경험에 대한 X^2 검증 결과

| 빈도(행백분율) | | 있다 | 없다 | 계(전체백분율) | X^2 (df) |
|-------------|---------|----------|-----------|------------|--------------|
| 성별 | 남 | 33(13.5) | 211(86.5) | 244(46.9) | 7.971(1)** |
| | 여 | 64(23.2) | 212(76.8) | 276(53.1) | |
| 학년 | 1학년 | 17(13.4) | 110(86.6) | 127(24.5) | 8.199(3)* |
| | 2학년 | 28(15.6) | 151(84.4) | 179(34.6) | |
| | 3학년 | 38(24.4) | 118(75.6) | 156(30.1) | |
| | 4학년 | 14(25.0) | 42(75.0) | 56(10.8)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31(16.9) | 152(83.1) | 183(35.5) | 1.261(2) |
| | 자연·과학계열 | 51(18.4) | 226(81.6) | 277(53.8) | |
| | 예·체능 계열 | 13(23.6) | 42(76.4) | 55(10.7) | |
| 피부 상태 | 나쁜 편이다 | 22(14.7) | 128(85.3) | 150(29.0) | 5.266(2) |
| | 보통이다 | 43(17.6) | 202(82.4) | 245(47.3) | |
| | 좋은 편이다 | 31(25.2) | 92(74.8) | 123(23.7) | |
| 건강 상태 | 나쁜 편이다 | 9(13.8) | 56(86.2) | 65(12.5) | 2.156(2) |
| | 보통이다 | 51(21.1) | 191(78.9) | 242(46.5) | |
| | 좋은 편이다 | 37(17.4) | 176(82.6) | 213(41.0) | |
| 형제 서열 | 장남 | 21(12.8) | 143(87.2) | 164(67.5) | .258(1) |
| | 차남이하 | 12(15.2) | 67(84.8) | 79(32.5) | |
| 자매 서열 | 장녀 | 39(23.6) | 126(76.4) | 165(59.6) | .065(1) |
| | 차녀이하 | 25(22.3) | 87(77.7) | 112(40.4) | |
| 월평균 용돈 | 0~29만원 | 22(14.9) | 126(85.1) | 148(29.1) | 3.295(2) |
| | 30~50만원 | 59(19.5) | 243(80.5) | 302(59.3) | |
| | 51만원 이상 | 15(25.4) | 44(74.6) | 59(11.6) | |
| 월평균 가구소득 | 400만원미만 | 56(17.2) | 270(82.8) | 326(66.9) | 1.476(1) |
| | 400만원이상 | 35(21.7) | 126(78.3) | 161(33.1)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15점 이하 | 4(3.7) | 104(96.3) | 108(20.8) | 37.101(3)*** |
| | 16~18점 | 20(13.4) | 129(86.6) | 149(28.7) | |
| | 19~21점 | 39(23.9) | 124(76.1) | 163(31.3) | |
| | 22점 이상 | 34(34.0) | 66(66.0) | 100(19.2) | |
| 계(전체백분율) | | 97(18.7) | 423(81.3) | 520(100.0) | |

*p<.05, **p<.01, ***p<.001

항목은 모두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추구하는 헤어스타일 이미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자연적이고 청순한 이미지 추구가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헤어스타일 연출 시 추구하는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자연적이고 청순한 이미지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난 윤소영(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월평균용돈이 가장 많은 경우(51만원 이상)에,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경우(22점 이상)에, 월평균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응답비율(각 30.5%, 30.3%, 27.0%)이 높았으며 전체평균(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용돈이 5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의외에도 매력적이고 섹시한, 우아하고 단아한, 개성적이고 티프한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응답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추구하는 이미지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헤어스타일 연출 시 고려하는 점

헤어스타일 연출 시 고려하는 점은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스타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8.4%), 배경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4) 두피관리 경험

두피관리경험은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81.3%), 성별, 학년,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대학생의 경우 '있다'의 비율(23.2%)이 전체평균(18.7%)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대학생보다 두피관리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경우 '없다'의 비율(86.6%)이 전체평균(8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의 경우 '있다'의 비율(25.0%)이 전체평균(18.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두피관리의 경험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인식이 최하위(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없다'의 비율(96.3%)이 전체평균(81.3%)보다 훨씬 더 높았고,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최상위(22점 이상)인 경우에는 '있다'의 응답비율(34.0%)이 전체평균(18.7%)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두피관리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두피관리행위에 더 관심이 있으며, 남녀대학생에서 약 20%의 학생이 두피관리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난 김정희(2001)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5) 모발제품 구입

모발제품 구입은 '대형매장/마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0.0%), 다음은 '화장품 전문점'이 26.8%로 나타났다. 모발제품 구입은 성별, 월평균용돈,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모발제품구입에 대한 X² 검증 결과

| 빈도(행백분율) | | 미용실 | 대형매장/마트 | 화장품전문점 | 백화점 | 기 타 | 계(전체백분율) | X ² (df) |
|-------------|---------|----------|-----------|-----------|---------|----------|------------|---------------------|
| 성 별 | 남 | 30(12.6) | 106(44.4) | 69(28.9) | 9(3.8) | 25(10.5) | 239(46.5) | 11.160(4)* |
| | 여 | 34(12.4) | 151(54.9) | 69(25.1) | 10(3.6) | 11(4.0) | 275(53.5) | |
| 학 년 | 1학년 | 17(13.5) | 54(42.9) | 37(29.4) | 8(6.3) | 10(7.9) | 126(24.6) | 11.628(12) |
| | 2학년 | 18(10.2) | 100(56.8) | 42(23.9) | 6(3.4) | 10(5.7) | 176(34.4) | |
| | 3학년 | 23(14.7) | 75(48.1) | 41(26.3) | 4(2.6) | 13(8.3) | 156(30.5) | |
| | 4학년 | 6(11.1) | 27(50.0) | 18(33.3) | 1(1.9) | 2(3.7) | 54(10.5)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22(12.2) | 89(49.2) | 50(27.6) | 9(5.0) | 11(6.1) | 181(35.6) | 3.852(8) |
| | 자연·과학계열 | 34(12.5) | 143(52.4) | 69(25.3) | 7(2.6) | 20(7.3) | 273(53.6) | |
| | 예·체능 계열 | 7(12.7) | 24(43.6) | 17(30.9) | 3(5.5) | 4(7.3) | 55(10.8) | |
| 월평균 용돈 | 0~29만원 | 16(10.8) | 90(60.8) | 31(20.9) | 5(3.4) | 6(4.1) | 148(29.4) | 20.773(8)** |
| | 30~50만원 | 36(12.1) | 146(49.0) | 78(26.2) | 12(4.0) | 26(8.7) | 298(59.1) | |
| | 51만원 이상 | 10(17.2) | 17(29.3) | 25(43.1) | 2(3.4) | 4(6.9) | 58(11.5) | |
| 월평균 가구소득 | 400만원미만 | 36(11.1) | 175(54.0) | 77(23.8) | 12(3.7) | 24(7.4) | 324(67.4) | 6.060(4) |
| | 400만원이상 | 24(15.3) | 69(43.9) | 48(30.6) | 7(4.5) | 9(5.7) | 157(32.6)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15점 이하 | 6(5.7) | 55(51.9) | 28(26.4) | 3(2.8) | 14(13.2) | 106(20.6) | 36.555(12)*** |
| | 16~18점 | 13(8.8) | 88(59.9) | 40(27.2) | 0(0.0) | 6(4.1) | 147(28.6) | |
| | 19~21점 | 25(15.4) | 76(46.9) | 42(25.9) | 11(6.8) | 8(4.9) | 162(31.5) | |
| | 22점 이상 | 20(20.2) | 38(38.4) | 28(28.3) | 5(5.1) | 8(8.1) | 99(19.3) | |
| 계(전체백분율) | | 64(12.5) | 257(50.0) | 138(26.8) | 19(3.7) | 36(7.0) | 514(100.0) | |

*p<.05, **p<.01, ***p<.001

성별에 따르면,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대형매장/마트라는 응답비율(54.9%)이 전체평균(5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화장품전문점(28.9%)이라는 응답비율과 기타(10.5%)의 응답비율이 전체평균(각 26.8%,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용돈에 따라서는 5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화장품전문점(43.1%)과 미용실(17.2%)의 응답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2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이 많은 대형매장/마트(60.8%)라는 응답비율이 전체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구매장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인식점수가 최상인 경우(22점 이상)에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미용실(20.2%)과 화장품전문점(28.3%)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대학생인 경우에, 월평균용돈이 51만원 이상인 경우에,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점수가 최상(22점 이상)인 경우에 화장품전문점에서 모발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미용실 점포유형

이용하는 미용실 점포유형은 '시내 중심가의 미용실'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1.3%), 성별, 월평균용돈,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앞 또는 집근처의 응

답비율(37.0%)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시내중심가의 응답비율(37.8%)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을 찾는 남자대학생과는 달리 여자대학생은 유행을 앞서가는 시내중심가의 미용실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용돈에 따라서는 5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고가인 프랜차이즈미용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39.7%), 용돈이 30~50만원인 경우는 다소 고가인 시내중심가의 미용실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학교앞 또는 집근처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여력과 이용하는 미용실 점포유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점수가 최상(22점 이상)인 경우에 프랜차이즈미용실(41.0%)과 시내중심가미용실(40.0%)의 이용률이 전체평균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유행을 선도하는 고가의 미용실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3) 헤어관리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은 월평균 31,769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대학생은 월평균 19,500원, 여자대학생은 월평균 42,700원으로 여자대학생의 헤어관리지출비용이 남자대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본 연구의 조사대상 남녀 대학생의 월평균용돈이 37만8369원(아르바이트비 포함)임을 고려해볼 때, 헤어관리지출비용이

<표 11> 미용실 점포유형에 대한 X² 검증 결과

| 빈도(행백분율) | | 프랜차이즈 | 시내중심가 | 학교앞, 집근처 | 정해져 있지 않음 | 계(전체 백분율) | X ² (df) |
|-------------|---------|-----------|-----------|-----------|-----------|------------|---------------------|
| 성별 | 남 | 68(28.0) | 58(23.9) | 90(37.0) | 27(11.1) | 243(46.9) | 14.703(3)** |
| | 여 | 66(24.0) | 104(37.8) | 70(25.5) | 35(12.7) | 275(53.1) | |
| 학년 | 1학년 | 34(26.8) | 38(29.9) | 37(29.1) | 18(14.2) | 127(24.6) | 7.417(9) |
| | 2학년 | 42(23.6) | 52(29.2) | 58(32.6) | 26(14.6) | 178(34.5) | |
| | 3학년 | 42(27.1) | 49(31.6) | 49(31.6) | 15(9.7) | 155(30.0) | |
| | 4학년 | 15(26.8) | 23(41.1) | 15(26.8) | 3(5.4) | 56(10.9) | |
| 전공 계열 | 인문·사회계열 | 56(30.8) | 57(31.3) | 49(26.9) | 20(11.0) | 182(35.5) | 7.803(6) |
| | 자연·과학계열 | 70(25.4) | 81(29.3) | 90(32.6) | 35(12.7) | 276(53.8) | |
| | 예·체능 계열 | 8(14.5) | 22(40.0) | 19(34.5) | 6(10.9) | 55(10.7) | |
| 월평균 용돈 | 0~29만원 | 28(18.9) | 48(32.4) | 48(32.4) | 24(16.2) | 148(29.2) | 12.837(6)* |
| | 30~50만원 | 76(25.2) | 99(32.9) | 96(31.9) | 30(10.0) | 301(59.4) | |
| | 51만원 이상 | 23(39.7) | 15(25.9) | 16(27.6) | 4(6.9) | 58(11.4) | |
| 월평균 가구소득 | 400만원미만 | 77(23.6) | 103(31.6) | 107(32.8) | 39(12.0) | 326(67.2) | 5.068(3) |
| | 400만원이상 | 51(32.1) | 48(30.2) | 40(25.2) | 20(12.6) | 159(32.8)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15점 이하 | 17(15.7) | 32(29.6) | 39(36.1) | 20(18.5) | 108(20.8) | 48.536(9)*** |
| | 16~18점 | 23(15.5) | 46(31.1) | 60(40.5) | 19(12.8) | 148(28.6) | |
| | 19~21점 | 53(32.7) | 44(27.2) | 47(29.0) | 18(11.1) | 162(31.3) | |
| | 22점 이상 | 41(41.0) | 40(40.0) | 14(14.0) | 5(5.0) | 100(19.3) | |
| 계(전체 백분율) | | 134(25.9) | 162(31.3) | 160(30.9) | 62(12.0) | 518(100.0) | |

*p<.05, **p<.01, ***p<.001

<표 12> 헤어관리 지출비용과 영향요인

N=455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β | t값 |
|--------------------|---------------|--------|----------|-----------|
| 헤어관리를 위한 총 지출비용 | constant | -5.053 | | -5.601 |
| | 월평균용돈 | .009 | .066 | 1.491 |
| | 월평균가구소득 | .291 | .108* | 2.462 |
| | 성별(남자=1,여자=0) | -1.959 | -.277*** | -6.214 |
| | 학 년 | -.078 | -.021 | -.479 |
| |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 .225 | .242*** | 5.470 |
| R ² | | | | .187 |
| adj R ² | | | | .178 |
| F값 | | | | 20.693*** |

*p<.05, ***p<.001

월평균용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의 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AIREX_i = a_0 + a_1 SPENDING + a_2 GAIN + a_3 GENDER + a_4 GRADE + a_5 AWARE + \epsilon_i$$

위 회귀식에서 HAIREX_i=i의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 SPENDING=월평균용돈, GAIN=월평균가구소득, GENDER=성별, GRADE=학년, AWARE=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성별(β=-.277)이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β=.242), 월평균가구소득(β=.108), 월평균용돈(β=.066), 학년(β=-.02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대학생인 경우에,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17.8%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과 배경변인별 헤어관리행동의 차이 및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남녀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헤어관리 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30점 만점에 평균 18.5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월평균용돈에 따라서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식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헤어숍 방문 횟수는 '2~3달 1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6.3%), 성별, 월평균용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2) 헤어스타일 연출시 추구하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개성적인 터프한 이미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1.6%), 성별, 월평균용돈, 월평균가구소득,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3) 헤어스타일 연출 시 고려하는 점은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스타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8.4%), 배경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4) 두피관리경험은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81.3%), 성별, 학년,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5) 모발제품 구입은 '대형매장/마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0.0%), 다음은 '화장품 전문점'이 26.8%로 나타났다. 모발제품 구입은 성별, 월평균용돈,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6) 이용하는 미용실 점포유형은 ' 시내 중심가의 미용실'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1.3%), 성별, 월평균용돈,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은 월평균 31,769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대학생은 19,500원, 여자대학생은 42,700원으로 성별(β=-.277)이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β=.242), 월평균가구소득(β=.108),

월평균용돈($\beta=.066$), 학년($\beta=-.02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헤어관리를 위한 총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17.8%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약간 높은 수준이며,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인식정도가 좀 더 높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헤어관리행동과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성별은 인식과 행동, 지출비용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가장 많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변수는 행동과 지출비용에 관한 분석에서 성별 다음으로 많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여자대학생의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남자대학생보다 높으며, 여자대학생인지 남자대학생인지에 따라 헤어관리행동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나타나며, 여자대학생인 경우에 그리고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헤어관리를 위한 지출비용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성(여대생 또는 남자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던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남녀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하였다는 점과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 중에서 헤어관리행동에 초점을 두고 배경변인 별로 구체적인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헤어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지출비용의 영향요인과 영향력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부산지역의 남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남녀의 성비를 고려한, 광범위한 지역 및 직업군을 포함한 표집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헤어관리행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후속연구로서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전공계열에 따라 헤어관리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체능계열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공계열간의 비율이 고려된 표집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남녀 대학생의 헤어관리에 대한 인식 및 행동에 관한 체계적인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헤어관리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곽형심(1997). **모발미용학**. 서울: 정문각.

- 김리라(2003). **女大生の毛髮美容管理 및 行態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3).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외모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9-107.
- 김영란(2008). 대학생의 외모 및 화장품 구매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1), 56-64.
- 김영숙·박진영(2009).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 인식 및 행동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259-273.
-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1). **대학생들의 두피관리행위와 모발특성 및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6). **남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피부, 신체이미지에 관한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박길순(2008).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복식문화연구**, 16(3), 533-546.
- 신효정(2002).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화장, 헤어스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지영(2005). **20~30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트로섹슈얼 성향과 외모관리 행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00). 자기모니터링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화장품 구매 행동 및 사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5), 771-784.
- 이미희(2001). **여성 미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1990).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 제일기획(2004). 대한민국의 17~39세 남녀 성역할의 변화 조사. 제일뉴스. 2004. 12. 26. http://www.cheil.co.kr/media/news_list.asp?curPage=18&nid=&search_key=title&search=
- 패션전문자료조사사전편찬위원회(1997). **FASHION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헤럴드경제(2004). 네티즌 74% 남성 성형수술해도 OK, 2004. 08. 17.
- Cash, T.F.(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Thomson, J.K.), Pergamon Press.
- Goffman, E. (1961). Identity kits in M.E. Roach & J.B. Eiche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 Kaiser, S.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Lennon, S.J. & Rudd, N.A.(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2), 94-118.

Rudd, N.A. & Lennon, S.J.(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접수일 : 2008년 11월 30일

심사일 : 2009년 02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4월 27일